

# 전쟁을 겪은 자, 현명해지거나 미치거나

## 극한의 경험

유발 하라리 지음·김희주 옮김



“군인이 되어 보지 못한 남자는 모두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한다. 소크라테스와 스웨덴의 칼 12세가 같은 중대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소크라테스는 ‘나를 따르라! 철학 강의를 듣자’고 말하고, 칼 12세는 검에 손을 얹으며 ‘나를 따르라! 차르를 권좌에서 몰아내자’고 할 때, 남자라면 부끄러워서 소크라테스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본문 중에서)

전쟁의 경험은 인간과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전쟁은 인간을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고, 인간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이해도 변화를 맞는다. 평생을 통해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을 전투 10분 만에 깨닫기도 한다. 전쟁은 바로 그런 것이다. 전쟁의 극한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전쟁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펴낸 ‘극한의 경험’은 전쟁을 문화적, 정신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전쟁 문화를 넓은 맥락에서 고찰한다. 책은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하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의 해박한 지



헨드릭 안드리센의 ‘바니타스 정물’(1650년경). 전쟁과 죽음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이채롭다. <옥당 제공>

식과 식견이 높아 있다. 유발 하라리는 2009년과 2012년 ‘인문학 분야 창의성과 독창성을 기리는 풀른스키상’을 수상할 만큼 군사 역사 분야 권위자다.

저자는 전쟁을 체험한 전투원들의 경험담에 나타난 전쟁을 이해하는 방식과 변화에 주목한다. 중세부터 근대 후기까지 전투원들의 전쟁 경험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전쟁을 해석하는 시각이 어떻게 변하고 특히 ‘계시적 전쟁 해석’이 등장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저자의 가장 중요한 논지는 1740년부터 1865년 사이에 전쟁을 이해하는 방식

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중세부터 18세기 이전까지는 전쟁을 계시 체험으로 해석하지 않다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를 거치면서 변화가 생겼다. 계몽주의와 감성 문화, 낭만주의가 주 원인이었다. 중세시대 선과 악, 미와 추를 판단하는 주제는 신(초자연적 존재)이었다. 그러나 인문주의 혁명을 거치며 인간이 절대적인 의미의 원천이 되었다. 이때부터 철학의 무게 중심이 이성과 정신에서 감정과 육체로 기울며 전쟁을 계시 체험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세기 들어 전쟁 계시 경험담은 유례 없는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동시에 전

쟁을 긍정적 계시 경험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환멸 경험으로 보는 부정적 시각도 늘어났다. 현명한 참전용사 이미지와 미친 참전용사 이미지가 대립적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전투원들은 ‘극한의 경험’으로 현명해지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경험’으로 트라우마를 겪기도 했다.

책은 이처럼 다양한 전쟁 경험담과 그로 변화된 인간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게 해준다. 올바른 전쟁관을 숙고해야 하는 이유다.

<옥당·2만3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문학과 지성 시인선’ 500호를 기념하다

### 내가 그대를 불렀기 때문에

오성근·조연정 엮음



1978년 황동규의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를 첫권으로 내놓은 ‘문학과 지성 시인선’이 통권 500호를 돌파했다.

한국 문학사 최초·최대 규모 시집 시리즈로 시인 211명의 시집 492권과 시조 시인 4명의 시선집 1권, 연변 교포 시선집 1권, 평론가 10명이 엮은 기념시집 6권으로 구성돼 있다. 무엇보다 전체 499권 중 88%에 달하는 439권이 한 회 이상

중쇄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번에 나온 통권 500호 기념시집 ‘내가 그대를 불렀기 때문에’는 초판 출간 후 10년 넘게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시집 85권을 선정, 65명의 시인마다 2편씩 골라 모두 130편을 묶었다. 시집 제목은 황지우의 ‘개 눈 속의 연꽃’의 구절 ‘내가 그대를 불렀기 때문에 그대가 있다’에서 차용했다.

문학과 지성사는 100권의 시집이 추가될 때마다 기념시집을 출간해 왔다. 100호 시집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1990), 100번째 시집들의 서시(序詩)만을 모은 ‘시아 너 아니냐’

(1997), 200번 대 시집에서 사랑에 관한 시를 고른 ‘행한 사랑의 노래’(2005), 300번째 시집에서 ‘시인의 자화상’을 주제로 자선작을 모은 ‘내 생의 중력’(2001) 등이다.

문학평론가 오성근·조연정이 엮은 이번 시집에 실린 시는 마중기의 ‘바람의 말’, 최하림의 ‘나는 너무 멀리 있다’, 정현중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오규원의 ‘지는 해’, 고정희의 ‘지리산의 봄 1’, 이성복의 ‘1959년’, 나희덕의 ‘사라진 손바닥’, 허수경의 ‘흔적가는 먼 집’ 등이다.

책 말미에는 조연정 평론가의 발문과 함께 시인 소개, 지금까지 출간된 시집 목록을 함께 실었다.

<문학과 지성사·8000원>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청춘의 독서=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 유시민. 그가 청춘시절에 품었던 의문들 그리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뜨거운 질문에 ‘세상을 바꾼 한 권의 책’으로 답한다. 이 책은 과거의 젊은들이, 지금 고민하는 청춘들이 그리고 100년 뒤 미래의 젊은들이 끊임없이 다시 읽을 책들에 대한 이야기다. 세계인을 울린 젊은 소설 한 권, 한때 세상을 전복시켰던 한 장의 선언문을 통해, 그는 인류의 생각의 역사를 보여주고 우리 몸 안에 자리 잡은 지성의 유전자를 발견하게 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4800원>

▲오늘은 잘 모르겠어=평론가의 해설을 덧붙이는 대신 시인이 선별한 예시에 ‘당나귀문학론’을 덧붙였다. 부록의 형태로 붙은 이 산문은 ‘오늘은 잘 모르겠어’를 탐닉하는 심보선의 독자들에게 독특한 재미를 더해줄 것이다. 사회학자이자 시인인 심보선은 불행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긍정적 결말을 끌어낼 수 있는 언어를 풀어놓는다. 새로운 희망을 상상할 수 있는 세계, 심보선이 시언어로 지은 유예의 공간으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문학과지성사·8000원>

▲제4차, 열정역=제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미래 대응 전략으로 새로운 열정의 탄생을 제안한다. 현실의 트렌드를 분석한 경제경영서이자 자기경영서인 동시에 그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자기계발서이다. 제4차 산업혁



명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제4시대’로 재정의하고, 제4시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

<젤리판다·1만6000원>

▲트렌드 인문학=최근, 인문학이 인간에게 정말 필요하고도 유용한 학문이라고 인터넷, 스마트폰이 외치고 있다. 중국고전부터 한국사 전반을 다루고 세계 역사를 훑으며 중요한 이슈를 현대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하지만 현대에 유행하는 키워드를 다룰 수는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한 책이 바로 ‘트렌드 인문학’이다. 경제 칼럼니스트이자 방송작가였으며, 한미 FTA 자문위원이었던 저자는 하이브리드한 생각과 전방위적인 관점에서 이 책에 들어갈 키워드들을 하나씩 선별했다.

<정한책방·1만5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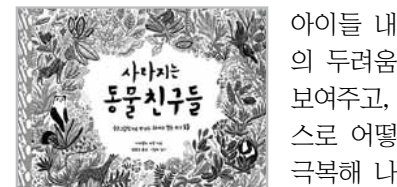
▲도와줘! 친구야=친구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평화로운 해결책. 또래 아이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또래중조’이야기다. ‘또래중조’란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또래가 조정자가 되어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 활동이다. 이 책은 소아마비 1급 장애자인 저자가 전하는 ‘또래중조’의 방법과 의미, 그리고 소통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웅진지식하우스·1만4800원>

▲사라지는 동물 친구들=사라져가는 50마리 멸종위기 동물 친구들이 숲, 동굴, 땅속, 바다 등에 꼭꼭 숨어 있는 숨은그림 찾기 그림책이다. 저자 이자벨라 베넬은 지구 생명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다양성을 아름다운 수채화에 담았다. 그것도 멸종위기 동물의 위대함을 보여 주듯 숨은그림 찾기 컨셉으로 말이다. 10장의 그림마다 꼭꼭 숨어 있는 5마리 동물 친구들을 찾으면 결코 쉽지 않기에 찾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

<그림책공작소·1만3000원>

▲귀신 잡는 빨간 주머니=귀신을 통해



아이들 내면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스스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풀어낸 그림책이다. 구미호나 뿔귀신처럼 유명한 귀신이 등장한다. 동시에 외다리귀신, 야광귀, 그림귀신처럼 이런 귀신이 있었나?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귀신들도 나온다. 이야기 뒤에 덧붙인 ‘공리와 함께하는 귀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 전통 귀신들의 생김새와 특징들도 설명했다. 으스스하면서도 한편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귀신들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한울림어린이·1만2000원>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

### 치평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준공업지역 개발촉진지구 토지 523평 <b>감정가 311,000,000</b> 최저가 311,000,000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b>매매가 520,000,000</b>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b>감정가 270,000,000</b> 최저가 216,000,000	▶담양군 담양읍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b>매매가 11억</b>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계획관리지역 콘도로점 해안가 토지 1200평 <b>감정가 103,000,000</b> 최저가 103,000,000	▶서구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b>매매가 23억</b>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b>매매가 17억</b>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현재 상업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b>매매가 38억</b>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b>매매가 17억</b>
	▶서구 마륵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b>매매가 38억</b> 조정가능
	▶광산구 비아동 아파트자리 토지 약 2000평 <b>매매가 평당 280만원</b>
	▶북구 신안동 주상복합상가 전방대정문근 (1층, 2칸) 건물 32평 <b>매매가 3억5천</b> (용자 2억5천, 보증금5천, 월143만원)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희관광인근 토지 359평 <b>평당 40만원</b>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b>3억</b>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b>평당 2만원</b>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상무지구 중심상권 커피전문점 6층건물 1층 50평 <b>5천만원 월 300백 시설비 8천</b> 조정가능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완료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 2540평 <b>5억 5천만원</b>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b>4억</b>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